

**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**  
**일부개정조례안**  
**심 사 보 고 서**

2019년 10월 22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**1. 심 사 경 과**

가. 제안일자: 2019년 10월 15일

나. 제 안 자: 최동철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0. 22.)

**2. 제안설명 요지**

(제안설명: 최동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개정에 따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 
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“서울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”에서 “서울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”로 변경

나. 장의 제목 변경

- “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”에서 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”으로 변경(제2장)
- 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”에서 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”로 변경(제3장)

다. 용어 변경

-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지원 대상을 “중증장애인”에서 “장애인”으로 변경  
(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호, 제3조, 제7조)
- 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”에서 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”로 변경  
(안 제2조제3호, 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장애인복지법 제53조(자립생활지원),  
제54조(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예산 조치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9. 10. 15. ~ 10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전문 및 관계법령: 불 입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」이 자립생활지원 대상자 확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있어, 그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수요에 맞게 편성되고,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·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## 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7. 토론요지 : 생략

##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제53조(자립생활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4조(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